

국어생활과 국어 연구

홍윤표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국어생활의 변화

중국 동포 학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의 질문에 당혹해 한 적이 있다. 왜 이전보다 군사시설이 많아졌느냐는 질문이었다. ‘촬영 단속 지역’이라는 도로 표지판의 내용을, 촬영을 단속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금기야는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었다. ‘촬영 단속 지역’을, 촬영하여 과속 주행을 단속한다는 뜻으로만 단순히 이해해 왔던 터라, 그 질문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과속 주행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지역을 ‘촬영 단속 지역’이라고 표기한 사람은, 그것을 보는 운전자들이 촬영을 단속하는 지역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촬영하여 단속하는 지역’이란 문구에서 문법적인 요소들만 생략하여도 뜻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절수를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내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라는 간단한 생각이었는데, 그 중국 동포 학자처럼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표지판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다. 나만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되니까.

요즈음은 상업용 간판의 표기도 매우 저돌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인기(?)가

있는가 보다. 소위 끼가 있는 툭툭 튀는 표현이 유행이란단. '올래안올래'(어느 술집 간판), '머글래싸갈래'(어느 순대 파는 집의 간판), '지질래뽕글래'(어느 미장원 간판) 등의 상호를 보면서, 그래도 그 집에 가는 손님이 있을 것이라니 생각하고 쓴웃음을 짓는다. 손님에게 반말로 묻고 협박하듯 강요하는 집에 그것도 단골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학대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툭툭 튀는 표현이면 그것이 무슨 뜻이던 상관 없이 좋은 것이다. 끼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요즈음의 간판들은 점점 더 튼다. 말하듯이 쓰고, 또 맞춤법 지키는 일도 부질없는 것이다. 한 국어로 썼으되 그것이 외국어 냄새가 나는 것이면 더욱 더 좋은 것이다. 간판이 사뭇 문장 형식으로 길어지고, 소위 분철하지 않고 연철하여 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올래 안 올래?'라든가, '먹올래 싸 갈래?'라든가, '지질래 뽕올래?'라든가 하는 표기를 버리고 위에서 보인 것 같은 표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어의 어원이나 형태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러한 표기들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인데(그것도 일부러 한글 맞춤법의 규약을 벗어나면서까지), 이제는 이러한 파격적인 표현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표기자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였음을 발견한다. 형태소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시각적·청각적 인상을 문자에 담아 보려는 의도가 이러한 표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의 음소나 음절경계 등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한 연철표기가, 후에 가서 음소와 형태소를 표기하는 중철표기 방식이, 그리고 다시 국어의 형태소를 나타내는 형태소 중심의 분철 표기 방식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문자 속에 포함시키려는 인식에서 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요즈음 출판되는 각종 책의 제목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책 제목에 문장을 쓰는 일이 흔하지 않았었는데('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정도), 요즈음의 책 제목들은 거의 모두가 문장 형식이다. 이제는 그러한 제목들이 하도 많으니까 식상하게 될 정도이다. 한 단어만 제목으로 주어도 독자는 그 단어 속에서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예술적 여운이라고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예술적 여운은 필요가 없는 말이 된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대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설새없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쏟아 붓는다. 이제 ‘빅딜, 워크아웃, 스톱킹’ 등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 영화는 이제 번역 따위는 필요 없는가 보다. ‘토탈리콜, 라스트맨 스탠딩’ 등이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쓰인다.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지면과 화면을 뒤덮는다.

전자통신상의 대화언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뜸 ‘너’로 지칭하면서 대화가 이어진다. 인사도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경어법을 갖춘 문장을 쓰는 사람은 통신상에서 ‘왕따’가 된다. 그냥 ‘안녕’이나 ‘알렙’으로 하면 된다. ‘하세요’ 같은 경어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나라’, ‘그리고’는 ‘글구’, ‘무엇을, 뭘’은 ‘몰로’, ‘재미’는 ‘잼’으로 바꾸어 버린다. 물론 얼굴은 맞대고 있지 않지만, 대화를 하는 것이니 구어체를 말하듯이 쓰면 된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만화책은 이보다 더 심하여서 웬만한 욕설쯤은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다. 타자 속도와 연관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단순히 타자의 속도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언어로 표출시키는 방식에 변화를 보이려는 의도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렇게 말과 글만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도로표지판, 간판, 컴퓨터, 광고지, 만화 등에 나타나는 한글의 글자꼴도 몇 년 전에 비해 너무 다양하여졌다. 각종 출판물에 보이는 한글 글자꼴은 이제 그 종류와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힘들게 다양하여졌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한글 글자꼴은 평양이나 중국의 연변 등지와 같은 지역보다도 훨씬 다양한 것이다. 화면으로만 보는 북한 평양의 간판이나 각종 선전구호에 쓰인 한글의 글자꼴과 북한의 각종 문헌들에 보이는 한글 글자꼴은 매우 단순하다. 여전히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에서 볼 수 있는 각종의 간판 글씨나 각종의 책에 보이는 한글의 글자꼴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한글 글자꼴이 많은 것은 최근에 한글 글자꼴을 다양하게 개발해 낸 결과이다. 특히 이것은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 다양한 한글 폰트의 개발로 생겨난 결과들이다. 단지 한글의 정해진 자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글의 글자 모양을 달리하여서 표현에 다양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은 ‘다방’은 차차 사라지고 ‘커피숍’만 늘어난다. ‘다방’

과 '커피숍' 사이에 의미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여 보면 '다방'은 노인네들이 가는 곳인데, 꼭 어항이 있고, 다방 마담이 손님과 앉아서 히히덕거리는 곳이라고 대답한다. 거기에 비해서 '커피숍'은 젊은이들이 가는, 현대식 다방을 말한다고 한다. 일본학자에게 물으니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이미 그 뜻이 달라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구'와 '테니스'는 그 뜻이 달라졌다. '권투'란 단어는 사라지고 '복싱'만 남아 있다. 이러한 예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이것은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 신문지 사이에 끼어 오는 백화점의 광고지에 보이는 각종의 물건 이름은 웬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물건 이름을 알지 못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2. 국어의 변화에 대한 인식

이렇게 우리의 국어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도로표지판, 간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다중매체와 전자통신 등의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국어생활의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문맹률이 거의 없어지고 고등교육 수혜자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이 그때그때 전해지고, 또한 외국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국어생활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국어생활의 변화 속에서 언중들은 국어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일반 언중들은 국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국어생활 속에서 국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증거로 드는 것도 다양하다. 고유어가 점차 사라지고 외래어가 많아지는 현상 속에서도 국어의 변화를 느낀다. 국어와 외국어가 마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도 국어는 변화한다고 말한다. 각종의 약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국어의 변화를 언급한다. 한글을 단순히 의사전달의 도구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하거나 또는 청각적 시각적인 디자인의 도구로서 인식되는 가운데에 (문자가 아니고) 국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들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어는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국어의 변화란 무엇인가?

국어학자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국어 변화에 대한 증거는 체계의 변화이다. 음운체계(자음체계와 모음체계 등), 문법체계, 어휘체계의 변화에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왜냐 하면 언어는 음운체계, 문법체계, 어휘체계의 유기적인 결합체이고 그 변화는 체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국어는 변화하고 있는가? 모음체계나 자음체계상에 변화가 보이는가? 아니면 문법체계의 변화가 우리가 인식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어학자들의 그 예리한 눈에는 아직까지 현대국어의 체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단지 어휘상의 변화만이 개별적으로 보이는가 보다. 그렇다면 국어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국어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언중들과 학자들간에 괴리가 심하다. 학자들은 국어의 변화를 체계의 변화로서만 인식한다. 반면에 언중들은 국어생활의 변화 속에서 국어의 변화를 인식한다. 그래서 국어의 변화를 시시로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어생활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변해 가고 있는 국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어학자들과는 달리, 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이지 아닌 개별적 인식이어서 국어의 개별적인 변화를 '국어 전체'의 변화로 착각하는 것일까?

언중들의 처지에서 보면 현대국어는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현대국어는 뚜렷한 체계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렇듯이 국어는 단지 변화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과 언중들은 국어의 변화에 대한 인식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학자들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도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문들과도 사뭇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학 연구논문을 한번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쉽게 수긍할 일이다. 국어학자들이 국어의 특징을 밝히 내기 위해 제시하는 국어의 예들은 언중들이 거의 접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상 언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예문들을 제시하고 그 예문들을 분석·설명하여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마치 국어의 보편성인 양 강조하는 것이다. 국어의 특수한 예문을 통하여 국어의 보편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과연 국어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국어학

자들의 국어 예문에 대한 인식도 일반 언중들과는 다른 것이다.

3. 국어생활에 대한 관심

대부분의 국어학자들과 일반 언중들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국어생활에 대한 관심이 각각 다르다. 언중들은 국어생활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또 그 변화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국어학자들은 줄곧 국어의 체계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어 내부의 체계만을 고집하면서.

언어체계는 어느 한 '체계'의 하위체계일 뿐이다. 그리고 국어의 체계와 체계 사이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어체계 이외의 다른 체계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존재하는 것이다.

국어학자는 이제 '국어'라고 하는 미시적인 체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어'를 포함하는 다른 거시적인 체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시적인 체계인 국어의 체계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더 큰 거시적인 체계인 국어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어학자와 일반 언중은 각각 다른 둘이 아니다. 국어학자는 국어학자인 동시에 언중도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책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그리고 교통 표지판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리고 각종의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어와 한글은 급속도로 다양성을 향하여 변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전보다 훨씬 다양한 국어와 한글이 거리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넘쳐 흐른다. 국어생활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은 일반 언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어생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